

허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530면*

연재훈

1. 들어가기

허웅 선생이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의 학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¹⁾인데, 주시경과 최현배의 전통 문법에서 형태론은 오랫동안 통사론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주로 품사 분류 위주로 기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허웅(1963)에 와서 국어 형태론 연구는 새로운 자리를 잡게 된다. 허웅(1963)에서 비로소 문법론의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단어 이하의 언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론적 구성과 단어나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통사론적 구성을 구분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연구하는 형태론과 통사론적 구성을 연구하는 통사론으로 나누었다.

국어 형태론 연구에 있어서 허웅 선생의 위치는 선구적이며, 다른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있어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 최현배의 『우리말본』을 이어받으면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그리고 현대의 구조주의 및 일반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 글쓴이는 연재훈(2005)에서 허웅 선생이 현대 국어 형태론 분야에 남긴 업적과 성과를 요약한 글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연재훈(2005)을 줄이고 다듬은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을 미리 밝혀 둔다. 허웅 선생의 형태론 연구에 대한 더 자세한 논평은 연재훈(2005)와 김윤신(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허웅(2000: 5)에서는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에서 이어받으려고 한 전통이 “주시경, 김두봉, 김윤경, 최현배 여러 선생님들이 이룩해 놓은 양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양식 - 특히 최현배 스승님의 양식 - 이 우리말에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참고가 된 것은 “최근의 여러 나라의 일반 언어학의 연구 성과”라고 하였다. 주시경, 최현배 두 스승님의 양식 위에 다른 나라의 일반 언어학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새로운 체계를 세운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고 치밀한 말본 체계를 세운 것이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이다. 예문의 자료가 풍부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 체계는 정연하고, 그 기술의 방법은 매우 과학적이고 정밀하다. 『우리 옛말본』(1975)이 15세기 한국어의 말본을 집대성한 역작이라면 그로부터 20년 후에 완성된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앞으로 『형태론』이라 부르기로 함²⁾)은 현대 한국어의 말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생의 불후의 역작이라 할 만하다.

2. 『형태론』의 기술방법과 말본의 하위 분야

『형태론』은 크게 네 묶음으로 나뉘는데, (1) 첫째 묶음: 말본의 기본 뼈대, (2) 형태론 (1) - 형태소와 낱말 -, (3) 셋째 묶음: 형태론 (2) - 풀이씨의 씨끝바꿈 -, (4) 넷째 묶음: 형태론 (3) - 준굴곡론 (토씨) - 이 그것이다.

『형태론』에서는 ‘말본’의 하위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말본 뼈대>

- 말본 - 형태론 - 굴곡법
 - 씨끝바꿈/순수굴곡법 (줄기 + 씨끝)
 - 준굴곡법 (임자씨 + 토씨)
- 낱말만들기
 - 가지 붙이기 - 앞가지 붙이기
 - 뒷가지 붙이기
- 합치기
- 통어론

『형태론』에서는 풀이씨의 씨끝바꿈을 순수굴곡법, 임자씨에 토씨가 붙는 현상을 준굴곡법이라 하여 형태론의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통어론에 귀속시킬 수도 있고, 형태론과 통어론이 만나는 형태통사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학자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형태론』에서는 형태론적 짜임새의 각 조각이 짜여지는 모습, 그리고 이 짜임새 안에 나타나는 굴곡의 가지와 말 만드는 가지들의 말본 뜻과 사전적인 뜻을 연구하는 말본의 한 분야를 ‘형태론’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통어론적 짜임새를 짜이

2) 이 글에서 인용한 쪽수는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2000)에 따른다.

루는 조각들(자립형태)의 서로 짜여지는 모습을 연구하는 말본의 분야를 ‘통어론’이라 하였다. 이제, 『형태론』의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형태소

『형태론』에서는 형태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았다.

- (2) 형태소
- 뿌리
 - 가지
 - 굴곡의 가지
 - 씨끝
 - <토씨>
 - 말만드는 가지
 - 앞가지
 - 뒷가지
 - (허릿가지)

허 응 선생은, ‘잡았다’와 같이, 다른 말과 소리-뜻으로 부분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³⁾을 ‘복합형식(complex form)’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곧 다른 어떠한 말과도 소리-뜻의 부분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말을 ‘단순형식(simple form)’, 또는 ‘형태소’라고 하였다. 또 한 형태소가 그 놓이는 환경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실현되었을 때, 그것들을 각각 ‘형태(morph)’라 하고, 한 형태소의 풀바꿈인 여러 형태들을 그 형태소의 ‘변이 형태(allomorph)’라 정의한 다음, ‘음성적 변이 형태’와 ‘형태적 변이 형태’, 그리고 ‘무형의 변이 형태(allomorphic zero)’를 구별하여 예시하고 있다(허응 1963: 175-9, 1981: 180-3, 2000: 148-50). 선생의 ‘형태소’ 정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분포와 뜻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소는 그 꼴(외형)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꼴에 따라서는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고, 같음 형태소와 무형의 형태소(숨어있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음 형태소’는 영어의 goose : geese, meet : met 따위나 국어의 ‘나 : 내’, ‘너 : 네’가 그러한 예들이라고 하였다. ‘무형의 형태소’는 아무런 꼴(소리)을 가지지 않는 형태소인데, 국어의 때매김법에서 ‘끝남’, ‘추측’

3) ‘잡았다’는 ‘막았다’, ‘잡겠다’, ‘잡았느냐’와 소리-뜻으로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도로생각’ 등은 각각 ‘-았-’, ‘-졌-’ ‘-더-’에 의해 표시되는 데 반해 ‘현실법’은 이러한 때때김 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형태소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다른 때때김법과의 균형을 잡혀 조직상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151쪽). 즉, 국어의 현실법은 ‘무형의 형태소’에 의해 표시되는 굴곡범주로 본 것이다.

『형태론』(151-3)에서는 형태소 쪼갬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사람’을 ‘살다’와 관련을 지어 두 형태소로 볼 것인지, ‘할아버지’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와 뜻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곡식의 타작에 쓰이는 ‘도리깨’를 ‘돌-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돌-이-깨’로 분석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씨끝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종으니라’, ‘가나니라’의 ‘-으니라’, ‘-나니라’를 한 형태소로 볼 것인가 두 형태소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허웅은 이 씨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석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자마다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다.⁴⁾ 예를 들어 ‘-느냐’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느냐’(남기심 1983), ‘느+야’(Martin 1954), ‘느+냐’(고영근 1989), 그리고 ‘느+니+아’(서정목 1987)가 그것인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느-’를 분석해 내는 경우와 분석하지 않는 경우의 둘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느-’를 분석해 내는 것은 이것의 15세기형이 ‘-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현대국어라는 공시적인 언어 현상을 놓고 통시적인 사실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공시적인 사실에 입각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고영진 1997).

또 『형태론』(152)에서는 최현배가 『우리말본』에서 ‘한 녹아붙은 씨끝’으로 처리한 ‘-을것같으면’ 등의 예는 분명히 여러 형태소로 된 말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것을 ‘-을-것-같-으면’으로 쪼개 놓고, 그 각 형태소의 뜻을 모아 보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뜻과 잘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은말’의 개념을 여기에도 끌어들이 ‘이은씨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고 있다. 형태소 분석의 모호함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은 허웅 선생의 그 이전 책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선생은

4) 고영근(1972, 1974)이나 김계곤(1968, 1969)처럼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을 선택한 논문에서는 분석된 요소가 공시적인 단위로 쓰일 때에만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형태를 가능한 한 극한까지 분석하는 태도를 보이는 임흥빈(1982, 1985), 서태룡(1985, 1988)의 입장도 있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모든 복합 요소를 공시적인 쓰임과 무관하게 극단까지 분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있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지만, 어원이나 통시적인 변화까지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모호함의 원인을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뜻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 때문이라고 하였다. 뜻은 사람의 정신세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말본 각 분야의 한계

말본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조직체이기는 하지만, 그 조직체는 물 썰 틈 없는 칸막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계를 넘나드는 일이 있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운학과 형태론, 형태론과 통어론, 그리고 형태론과 의미론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1. 형태론과 음운학의 한계

말본 연구의 아래 한계는 형태소이다. 그러나 한 형태소는 언제나 일정한 꼴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본에서도 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지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값’이란 한 형태소로 된 낱말은,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그 꼴이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음성학이나 음운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인데, 이 현상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규칙을 ‘변동의 규칙’이라고 하였다. 변동의 규칙은 음운학적인 규칙이지만, 형태론에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규칙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말본의 아래 한계인 형태소 자체의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뚱-’에 씨끝 ‘-으니, -으며’ 따위가 이어날 때 ‘도우니, 도우면’으로 바뀌는 소위 불규칙 활용도 형태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현상인데, 그 설명은 음운학에서 할 일이라고 하였다(94쪽). 씨끝의 ‘-어서/아서’, ‘-으니/니’, ‘-았/었’의 변동도 응당 형태론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면서, 또한 음운학에서도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모두가 음운학과 형태론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고민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동 규칙이나 형태교체론의 경우, 형태론에서 처리할 것인지 음운론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형태음운론이라는 별도의 부문을 설정할 것인지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문법관의 차이와 교체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문법의 입장에서 보면 변이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음운론의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태소 식별을 주된 과제로 삼았던 구조주의 형태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태교체가말로 형태론의 중요한 하위분야로 볼 수도 있다. 다양한 변이음에서 추상적인 음소를 추출해 내듯, 다양한 변이형태에서 추상적인 형태소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 형태론의 주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형태교체론은 마땅히 형태론의 소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체의 유형을 보면, 그것이 전적으로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일 경우는(ㄷ)->/ㄷ/, /명/) 음운론의 소관으로 볼 수 있지만, 형태론적 교체의 경우({누구}->/누구/, /누/) 형태론의 소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교체론도 관점에 따라 소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구본관 2002 참고).⁵⁾

4.2. 형태론과 통어론의 한계

『형태론』(94)에서는 형태론과 통어론의 한계도 서로 넘나드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음법’, ‘두자격법’, ‘하임’과 ‘입음’의 경우, ‘-시’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붙어 만들어진 말들은 끝바꿈의 한 가지이므로, 이것은 형태론의 문제이지만, 이 끝바꿈은 단순히 이 말 자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월의 입자(주체)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통어론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95쪽). 이것은 이러한 굴곡범주들을 형태론에서 다룰 것이냐 통어론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⁶⁾

어떤 단위를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형태론의 연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 굴절법과 파생법, 합성법을 모두 형태론에 포함하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파생법과 합성법만을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굴절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다. 생성문법에서 굴절접사를 통사부의 소관으로 처리하려는 약어휘론자들이 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어문법에서 조사와 어미를 통사론에 귀속시키려는 논의도 있는가 하면(우순조 1997, 2004), 여전히 굴절법을 형태론의 소관

5)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동 규칙이나 형태 교체론 등, 그동안 소위 형태 음소론의 분야에서 다루던 현상들은 음운론으로 그 자리를 물려주고 형태론은 어휘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분야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박진호 1999)도 있다.

6) 권재일(1992: 22-28)에서는 형태소가 모여서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결합과정’이라 하고, 형태론적 구성이 모여서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합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현상들을 연구하는 문법론의 연구분야가 형태론이며,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현상들을 연구하는 문법론의 연구 분야가 통사론이라 하였다.

으로 처리하려는 관점도 있다. 권재일(1992)에서는 높임법, 시제법, 사동법, 피동법 등의 굴곡범주를 문법범주로 인정하면서도 통사론의 이름 아래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굴절법을 통사론에서 처리하려는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형태론』에서는 또 ‘자리토씨’는 그것이 붙어 있는 말과 풀이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도 형태론의 소관이면서, 통어론의 초점이 되기도 하는 언어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준굴곡론이라 하여 형태론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조사를 형태 단위로 볼 것이냐 통사 단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경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형태론』에서는 그러나 각 분야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7쪽). 통어론은 자립형태 끼리의 짜임새인 통어적 짜임새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형태론은 그 안에 구속형태를 가진 형태론적 짜임새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형태론과 통어론의 한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연구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같은 문법 범주를 다루더라도 그 연구 대상에 따라 기술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하임과 입음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하임’(사역)과 ‘입음’(피동)은 굴곡론에 들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만들기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지하는 줄기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328-9쪽). 그런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말들은 그 밑말이 쓰였을 경우와는 다른 월의 짜임새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은 통어론에서도 풀이가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455쪽). 여기에서 사동과 피동을 형태론에서 기술할 것인가 통어론에서 기술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형태론』에서는 통어론적인 문제는 통어론에서 풀이하고 있고, 형태론에서는 하임과 입음의 말만들기(뒷가지 붙이기)만을 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동법과 피동법의 문제가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따로따로 기술되는 것이다. 즉, 형태론에서는 조어법의 과정만을, 통어론에서는 문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기술된다.

4.3. 형태론과 의미론의 경계

형태론과 의미론의 상관성도 크기 때문에 둘 간의 영역을 명쾌하게 가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이러한 구분의 어려움은 어휘론의 영역 설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휘 형성론이 어휘론에서 분리된 것도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이러한 넘나들이 생긴 이유는 바로 어휘의 의미와 형태를 철저히 구분하여 기술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단어 형성에서 의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관성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허웅 선생의 일련의 저술에서도 형태론과 의미론의 경계 넘나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형태론의 자리에서 낱말의 의미를 함께 논하는 것은 이 두 영역의 상관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낱말 설정 방법과 낱말의 정의

『형태론』(209-)에서는 ‘낱말은 자립형태로서는 가장 작은 낱덩이이나, 토씨의 ‘-은, -을, -에야와 ‘-이다’와 같은 말은 구속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낱말로서의 자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낱말 설정의 세 가지 기준(206-8)으로 보면, 최현배 선생과 같은 방법이다. 낱말의 특성이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는 고수 하면서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이 설정 방법의 특이점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도 예외적인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토씨와 ‘-이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웅에서는 씨끝은 낱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토씨와 ‘-이다’는 낱말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씨와 씨끝은 그 말본상의 특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씨끝과 줄기의 결합관계는 강한 반면, 토씨와 임자씨의 결합관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낱말의 본질 문제’와 토씨와 ‘-이다’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223쪽)에서, 허웅의 ‘-이다’ 처리는 학교 문법에서의 서술격 조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⁷⁾ 즉 ‘-이다’의 용법도 토씨와 비슷한 데가 있으니, 이 말은 임자말에 붙어서 그것을 풀이말이 되게 하는 구실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다’를 잡음씨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다’의 ‘-이’를 단순한 고품소리 같은 것으로 가볍게 보아 넘기려는 해석에 대해서도 최현배의 설명(우리말본 187-191쪽)을 원용하여 반박하고 있다.

허웅 선생은 최현배를 따라, ‘-이다’와 ‘아니다’를 잡음씨로 보고 있다. ‘아니다’를

7) 그러나 336쪽 이하에서 보면 ‘-이다’를 잡음씨로 처리하고 있다.

그림씨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336쪽), ‘-이다’를 토씨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씨가름의 기본원칙은 풀과 구실과 뜻이라 하였는데, ‘-이다’를 토씨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은 씨가름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토씨는 그 풀이 바뀌는 일이 없으나, ‘-이다’는 그 풀이 바뀌므로 풀이씨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풀이씨라면, 그 세 가지 갈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풀과 구실과 뜻으로 볼 때, ‘아니다’와 같은 잡음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338쪽).⁸⁾

이처럼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키고 어미는 단어에서 배제하는 정의에 따를 경우 단어가 문법의 어떤 층위에 사용되는 단위인지 명확하지 않게 된다.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어를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 보기 어렵고, 단어 경계를 넘어서는 음운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음운 규칙의 적용 단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시정곤(1998)처럼 음운론적인 단어를 따로 두기도 하고, 박진호(1994)처럼 통사론적인 단위로는 ‘통사 원자’라는 단위를 새로 도입하기도 한다. 한편 어휘부가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등재소(listeme)라는 개념을 설정하여(채현식 1994) 단어의 개념을 대치하기도 한다.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체되기도 하지만 언어습득 과정이나 화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해 보면 단어는 여전히 화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단위로 존재하는 듯하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정의는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며, 이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6. 씨가름(품사 분류)

『형태론』에서는 우리말의 씨갈래를 열 한가지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음씨(접속사)’를 따로 세웠다는 점에서 약간 고친 것이다. 이음씨는 『우리말본』(601-4쪽)에서는 어찌씨의 한 작은 갈래로 잡고 있으나, 『형태론』에서는 어찌씨와 그 자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음씨를

8) 그렇지만, ‘-이다’의 문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다’를 풀이씨로 보는 소위 용언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접미사로 보는 입장(시정곤 1993), 기능동사로 보는 입장(목정수 1998) 또는 주격조사 ‘이’와 같은 조사(우순조 2000, 2001, 최기용 2001)로 해석하는 입장 등이 제기되었다. 여러 가지 주장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 독립된 씨갈래로 세우고 있다. 어찌씨는 월의 짜임새 안에서 풀이말에 바로 이끌리는 꾸밈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음씨는 월의 짜임새 안에 바로 놓이지 않고, 홀로말의 구실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이음씨를 한 독립된 갈래로 세운 이유이다.

구조주의 문법이나 변형 생성 문법에서는 품사론이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구조주의 시기의 형태론 논의에서는 대체로 전통 문법에서 확립된 품사를 인정하였고, 품사 분류에 관해서 논의하는 대신 각 품사에 속하는 개별 단어의 형성이나 분류에 관심을 기울였다. 생성 문법에서는 전통 문법에서 수립된 품사를 해체하여 생성 문법의 틀에 맞게 재분류하여 사용했다.

허웅 선생의 앞선 연구에서는 품사 분류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형태론』에 와서 다시 품사 분류론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7. 조어법

『형태론』에서는 파생법을 ‘가지 붙이기’, 합성법을 ‘뿌리 합치기’라고 고쳐 부르면서 낱말 만들기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3) 낱말 만들기
 - 가지 붙이기
 - 앞가지 붙이기
 - 뒷가지 붙이기
 - 뿌리 합치기
 - 통어적 합치기
 - 비통어적 합치기

『형태론』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토대로, ‘단순한 말만들기’와 ‘복잡한 말만들기’ (세 형태소, 네 형태소, 다섯 형태소로 만들어진 말)로 나누어 조어법의 실례들을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씨갈래를 기반으로 한 낱말 만들기’ 항을 따로 만들어 임자씨, 풀이씨, 어찌씨, 매김씨, 토씨, 느낌씨, 특수뿌리 만들기의 예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언어학』이나 『국어학』에는 보이지 않는 체계인데, 아마도 최현배의 체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각 씨갈래 밑에서 낱말 만들기의 예들을 다시 보이고 있는 듯하다.

8. 굴곡법

허웅의 체계에서는 굴곡법을 형태론에서 다루고 있다. 국어 형태론에 조어법과 굴절법을 포함시키는 이런 논의는 서구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후의 많은 형태론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우선 굴절에 용언의 활용뿐 아니라 명사의 곡용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주지하듯이 국어의 체언은 용언에 비해 자립성이 강하여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방식은 굴절로 보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언의 활용까지도 인구어의 굴절과는 달라서 굴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박진호 1994, 우순조 1997). 박진호(1994)는 인구어에서 굴절은 단어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 조사와 어미는 구나 문장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를 굴절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순조(1997)에서도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술어의 끝바꿈을 굴절어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활용’ 개념에 따라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는 교착어인 국어를 굴절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는 국어의 유형론적인 특징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통사적 접사로 간주하고, 국어의 접사체계를 새롭게 제시한 경우도 있고(시정곤 1998), 교착소(임홍빈 1998)나 통사원자(박진호 1994)라는 개념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교착소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조사를 ‘체연구 교착소’, 어미를 ‘용연구 교착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허웅 선생은 굴곡법과 준굴곡법을 모두 『형태론』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곡용과 활용을 굴절론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되는 여러 현상들을 형태론에서 다루느냐 통사론에서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허웅 선생의 체계를 이어 받고 있는 권재일(1992)에서는 통사론을 문법범주론과 문장 구성론으로 나누고, 의향법, 높임법, 시제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9) 우순조(1997)에서는 어휘적 응집성(lexical integrity) 진단법을 적용한 결과와 함께, 한국어 어미들이 독자적인 통사 단위임을 지지하는 다양한 공시적/통시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우순조(2004)에서도 최현배(1937) 이래로 소위 활용 개념에 입각하여 어미로서 기술되어 온 한국어 교착 형태소들이 독자적인 통사 단위이며, 특히 이들 가운데 비종결 어말어미들은 이들이 통합되는 통사 구조의 문법적 기능(grammatical role)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조사와 평행한 양상을 이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강조법 등의 문법(굴곡)범주를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다. 활용을 굴곡범주로 본 것은 허웅과 같지만, 이것을 형태론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통사론의 영역으로 본 것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9. 풀이씨의 씨끝이 나타내는 굴곡범주

『형태론』(524)에서는 풀이씨의 씨끝이 나타내는 굴곡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 | | |
|----------|----------|----------------------|
| (4) 맺음씨끝 | - 한자격법 - | 1. 의향법(마침법)과 들음이 높임법 |
| | - 두자격법 - | 2. 이음법 |
| | | 3. 이름법 |
| | | 4. 매김법 |
| | | 5. 어찌법 |
| 안맺음씨끝 | - | 6. 임자(주체)높임법 |
| | | 7. 매매김법과 다짐법 |

9.1. 의향법

의향법은 들음이에 대해서 요구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리고 어떤 요구가 있느냐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526쪽).

- | | | |
|---------|-----------|-------------------|
| (5) 의향법 | -요구 없음 | 서술법 |
| | -요구 있음 | 물음법 (의문법) |
| | - 답을 요구 | 시킴법 (명령법) |
| | - 일하기를 요구 | 둘이 함께 - 함께법 (청유법) |
| | - 들음이란 | |
| | - 둘이 함께 | |

9.2. 들음이 높임법의 등분

말할이의 들음이에 대한 태도는, 크게는 ‘낮춤’과 ‘높임’의 두 갈래로 나뉘고, 높임은 ‘아주 높임’과 ‘예사높임’으로 나뉜다고 하여 3등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시경의 방법을 따른 것인데, 최현배의 ‘우리말본’에서는 낮춤을 다시 ‘예사낮춤’과 ‘아주 낮춤’으로 나누고, 다시 ‘반말’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갈래를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낫춤’으로 묶어서 풀이한다고 하였다(528쪽).

들이 높임의 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등급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을이 높임의 등급을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어렵고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들을이 높임의 등급은 학자에 따라 6등급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성기철 1985), 4등급을 구분하는 일도 있다(권재일 1992: 124-5).¹⁰⁾

9.3. 두 자격법

풀이씨가 그 끝바꿈에 따라, 한 편으로는 풀이말의 자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씨갈래 또는 다른 월조각(월성분)의 자격을 겸해 가지는 굴곡범주를 ‘두 자격법’이라 하는데, 이에는 ‘이름법’, ‘매김법’, ‘어찌법’의 세 가지 아랫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986쪽).¹¹⁾ 이름법 씨끝에는 ‘-기’와 ‘-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이 두 말꼴의 생산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1001-3). 매김법의 씨끝에는 ‘-는’, ‘-은’, ‘-을’의 세 가지가 있다. 어찌법의 씨끝으로는, ‘-듯’, ‘-듯이’, ‘-게’, ‘-도록’, ‘-을수록’ 등이 있는데, ‘-듯’과 ‘-듯이’는 ‘비유’(앞뒤가 비슷함)를 나타내고, ‘-게’와 ‘-도록’은 ‘어떠한 경지에 이름’을 나타내고, ‘-을수록’은 ‘비례’(앞의 말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뒤의 말의 내용이 이루어짐)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035).

9.4. 임자높임과 들을이 높임

들이 높임법과 임자 높임법은, 다 같이 말할이가 어떠한 대상을 높여 대우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두 범주의 말본 상의 성격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들을이 높임은 말할이와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말이

10) 들을이높임의 등급에 대한 논의는 서정수(1984), 성기철(1985), 서정목(1990), 권재일(199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두자격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우순조(1997, 2004)에서는 활용 개념을 받아들일 때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소위 두자격법이라는 개념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어 술어의 끝바꿈을 굴절어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활용’ 개념에 따라 기술하면 두자격법을 인정해야 하지만,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점을 직시하고 어미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보면 두자격법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상황’에 관한 것인데, 임자높임은 말할이와 말 안에 등장하는 임자(주로 사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어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통어론과 겹쳐지는 문제이기도 하다(1052쪽). 또 ‘바로높임’과 ‘건너높임’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높일 사람을 바로 높이는 것을 ‘바로높임’이라 하고, 때로는 높일 사람이 바로 그 풀이말의 임자말로 등장하여 있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람에 관한 것, 또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일이 임자가 되어 있을 경우에 높임법을 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건너 높임’이라고 하였다(1055쪽). 이러한 ‘바로높임’과 ‘건너높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의 이전의 업적인 『언어학』이나 『국어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9.5. 때매김법

『형태론』(1089)에서 때매김법은 현실성의 있고 없음, 회상성의 있고 없음, 완결성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다음과 분류되어 있다.

(6) 현실성 - 있음	현실법
- 없음 - 회상성 - 있음	회상법
- 없음 - 완결성 - 있음	완결법
- 없음	추정법

또, 때매김의 형태소 하나로 나타내는 때매김을 ‘단순 때매김법’, 그 형태소 둘 이상으로 나타내는 때매김법을 ‘복합때매김법’이라 구분하고, 복합때매김법으로, 완결추정법(완결미정법), 추정회상법, 완결회상법, 완결추정회상법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1196 이하).

10. 토씨의 갈래

토씨는, 그것이 기대는 언어형태의 성격과, 그 언어형태에 붙여주는 자격과, 그 뜻에 따라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고 있는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1238쪽).

(7) 주로 임자씨에 (일반토)

-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함
 - 월의 짜임새 안에
 - 풀이말에 바로 이끌림 자리토
 - 풀이말에 건너로 이끌림 이음토
- 월의 짜임새 밖에 홀로/부름토
- 자격이 일정하지 않음 (뜻 덧보탬) 도움토
- 마디에 특수토

『형태론』(1243)에서 우리말의 자리토는 임자토, 부름토, 위치토, 방편토, 견중토의 다섯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최현배의 『우리말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우리말본』의 자리토씨 체계

- 1) 임자자리토(주격조사)
- 2) 매김자리토(관형격조사)
- 3) 어찌자리토(부서격조사) - 곳자리, 연장자리, 감목자리, 견중자리, 함께자리, 바꾸힘자리, 따옴자리
- 4) 부름자리토(목적격조사)
- 5) 기움자리토(보격조사)
- 6) 부름자리토(호격조사)

이제 『형태론』의 체계를 『우리말본』의 체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9) 가. 기움자리토의 ‘-가/이’를 임자토에 어울렸다.

- 나. 바꾸힘자리토의 ‘-가/이’는 임자토에 어울렸고, ‘-으로’는 방편토에 어울렸다.
- 다. 따옴자리토를 자리토로 보지 않고, 특수토로 풀이했다.
- 라. 매김자리토와 부름자리토를 자리토로 보지 않았다.
- 마. 바꾸힘자리토와 따옴자리토를 뺀 나머지 어찌자리토 가운데 연장과 감목을 어우르고, 견중과 함께함을 하나로 어울렸다.
- 바. 어찌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위치 방편 견중으로 나누었다.

『형태론』(1344-1352)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말본의 체계를 바꾼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같은 형태는 되도록이면 한 범주로 처리하려는 노력과, 일정한 자격을 가진 말이라도 그것이 풀이말에 바로 이끌리지 않으면 ‘기능’을 가졌다고 보지 않는 입장 등에 기초를 두고 자리토씨를 처리한 결과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리의 수를 줄인 이유는, 자리의 수란, 가능하다면 적어야 형태론의 풀이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통어론의 풀이도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1.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허웅 선생이 현대 국어 형태론 연구에 남긴 업적을 주로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앞선 연구와 비교하여 발전된 점을 드러내고,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논의들과 비교해 보았다.

『형태론』은 『우리말본』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 국어의 체계에 맞게, 그리고 현대의 구조주의 및 일반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말본 체계를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의 풍부함, 체계의 정연함, 기술 방법의 과학성과 정밀성 등이 『형태론』이 가진 훌륭한 점이라 할 것이다. 김윤신(2014)에서는 『형태론』이 연구대상의 범위를 문어에 한정하지 않고 구어로 확장했다는 것이 장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형태론과 통어론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던 전통문법 시기에, 구조주의 언어학 및 일반 언어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형태론과 통어론을 구별하고, 정치한 분석 방법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 형태론 연구에 허웅 선생이 남긴 업적이라 하겠다¹²⁾.

참 고 논 제

- 고영근(1972),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 -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8. (고영근 1989에 다시 실림)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고영근 1989에 다시 실림).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12) 『형태론』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 등은 지면 관계상 연재훈(2005: 257-8)과 김윤신(2014) 등에 미루기로 한다.

- 구분관(2002), 「형태 연구 50년」, 『국어학 연구 50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해안.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계곤(1968), 「현대국어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 -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 『논문집』 3(인천교육대학).
-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 『논문집』 4(인천교육대학).
- 김윤신(2014), 「허용 선생의 형태론 연구의 새로운 해석」, 『허용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도서출판 박이정.
- 남기심(1983), 「국어의 공식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이병근 외 편(1993: 45-57) 재수록.
- 마틴, 사무엘 (Martin, Samuel)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245-289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언어학』 31: 71-100.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 박진호(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 - 인접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태론』 1권 2호.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목(1990), 「한국어 청차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 (2) - <오오체>에 대한 기술과 설명」, 『국어학 논문집』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 태학사.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서태룡(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태학사.
- 성기철(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143-149.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원리』 (수정판), 한국문화사.
- 연재훈(2005), 「현대국어 형태론」, 김차균 밖에, 『허용 선생의 우리말 연구』, 태학사.
- 우순조(1997), 국어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호.
- 우순조(2000),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 『형태론』 2권 1호: 129-138.
- 우순조(2001), 「‘이다’의 ‘이’가 조사인 증거들」, 『형태론』, 3권 2호.
- 우순조(2004), 「통사범주와 문법적 기능 - 두 자격범을 중심으로」, 『언어학』 40호.
- 임홍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 임홍빈(1985), 「형태」, 『국어국문학연구사』, 우석.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문장범주와 굴절』 1. 태학사.

허웅(1996/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1530면 283

채현식(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0.

최기용(2001), 「‘-이다’의 ‘-이’는 주격조사이다」, 『형태론』 3-1.

최동주(2003), 「국어 어미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 현황과 과제』, 박이정.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허웅(1963), 『언어학개론』, 정음사.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웅(1981), 『언어학』, 샘문화사.

허웅(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허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연재훈 (Yeon, Jaehoon)

Dept. of Japan and Korean

SOA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WC1H 0XG, UK

E-mail: jy1@soas.ac.uk

(2013. 10. 29. 원고 받고, 2013. 10. 30. 심사하고, 2013. 11. 22. 실기로 함)

KYOBOKU
교보문고